

의정 스님 선법 스님 각산 스님 정과 스님 마가 스님

코로나 19 극복 비결 제시할 참선명상 대가들 총출동



종묵 스님 금강 스님 전현수 박사 이용태 변호사 백성호 기자

참선지도자협회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7월 1일 개강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수강생 더 많이 선발 특징

선명상참선지도사 인증 과정…그동안 5백여 수강생 배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참선명상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

도심 속에서 참선명상 대가들을 초청한 릴레이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 회장 각산)는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강남구 참불선원서 제4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개최한다.

총 26강좌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실제 삶에 적용되는 지혜와 선방 수좌의 실참수행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돼 주목된다.

그동안 500여 수강생을 배출한 한국참선도자협회의 선(禪)명상 참선지도사와 명상지도사 인증과정이기도 한 이번 강좌에는 일생을 수행으로만 일관한 조계종 선원장급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를 비롯해 명상 고수들이 총출동한다. 커리큘럼도 참선의 진수인 간화선과 화두 수행법, 부처님 성불수행 안반선 호흡명상,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심리치료 명상, 생활에 적용되는 마음공부 등 시대와 공감하는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강의 중간인 8월 22일에는 충주 석종사로 선원장인 혜국 스님을 찾아가 현장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대강좌의 커리큘럼은 7월 1일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참선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나는 왜 간화선을 택할 수밖에 없나(7월 8일: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자비명상, 생활명상(7월 15일: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현대사회의 참선과 명상(7월 22일:이용태 (사)한국총명상협회 운영위원장) △참사람 수행법(7월 29일: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불교명상심리치료(8월 5일:전현수 정신건강전문의) △선명상 마음공부법(8월 12일:백성호 중앙일보 기자)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8월 26일: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선방 수좌의 실제 참선(9월 9일:대승사 한주 정과 스님) △참선의 이론과 실제(9월 16일: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선법 스님) △참선이란 무엇인가(9월 23일:수도암 선현 종묵 스님) △각산 스님의 보충특강과 질의응답 및 졸업식(10월 7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용태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경영위원장은 "코로나 19의 확산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서구인들은 그동안 신봉해 오던 물질 문명에 의구심과 한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물질문명 보다 마음과 정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마음 즉 정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참선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도 "참선명상은 우리 내부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보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수용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큰 길"이라며 "이번 강의는 최고의 명상 대가들이 마음 수행의 길잡이 역할과 동시에 현대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커리큘럼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강좌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200명과 현장강의 100명 선착순으로 10월 7일까지 14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 수료 후에는 수강생들과 즉문즉설 문답 시간도 마련해 공부중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협회 소속 기관서 실참도 실시 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수강생을 더 많이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의는 참선지도자협회(02-451-0203)와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chambul3280/8029)로 하면 된다.

'최고의 설법가' 부처님 화법 배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6월 8~10일

이현정 박사 초빙해 스피치 강좌



"소수의 신도들 앞에선 법문도 곧잘 하는데 많은 대중 앞에 서면 정작 긴장을 해 고민입니다."

"직설적인 말투로 주위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화법을 배워 더 따뜻한 소통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떨지 않고 부처님처럼 온화한 미소로, 온화하지만 핵심을 전하는 화법을 배우고 싶어요."

법문과 상담, 신도교육 등 다양한 소통 경험으로 '말하기' 만큼은 능수능란할 것이라 생각했던 스님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제각기 자신이 가진 '말하기 약점'을 극복해 설법으로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비구니 스님들의 포부가 전국비구니회로 모였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6월 8일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설법스피치로 불교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다'를 개강했다. 조계종 승려인증교육이기도 한 이날 강좌는 〈불교 커뮤니케이션〉 저자이자 스피치 전문가 이현정 박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6월 10일까지 3일간 화법과 마음가짐부터 발성, 호흡까지 스님들의 설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강좌 첫날인 8일 서울 법륭사에는 멀게는 경주, 가까이는 수도권까지 전국 각 지역의 비구니 스님 20여 명이 참석했다. 목적은 같았다. 어느 자리에서건 좀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화법으로, 포교의 기본인 설법은 물론이고 주위와의 소통능력도 키우고 싶다는 것.

이현정 박사는 "아무리 법문을 잘하는 분도 많은 대중 앞에 서거나 낯선 환경에 놓이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긴장되고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설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박사는 "부처님은 제일가는 설법가셨다. 부처님이 설하고 실제 교화하신 여러 내용과 교훈, 인연관계 등을 총망라한 것이 불교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설법, 즉 불교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스스로 포교 역량을 키우고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의 첫 단계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이 같은 능력을 향상시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포교에도 일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 전국비구니회의 불교스피치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현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된 후 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미 한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올 7월부터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유투브 강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상월선원 印만행결사, 예비 순례 韓서

상월선원 결사대중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태화산서 진행

인도 만행결사 같은 방식으로 진행

저녁공양 후엔 한국불교 발전 토론

한국불교 변화의 시작,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인도 만행을 앞두고 국내에서 예비 순례가 진행된다. 살인적인 무더위로 유명한 인도에서의 만행에 앞서 더위와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모으기 위함이다.

상월선원 결사대중은 6월 9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인도 만행결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총도감을 맡은 호산 스님, 지객 원명 스님, 유승 스님, 각성 스님 등 스님들과 인도 만행에 재가대중으로 참여하는 정충래 동국대 이사, 인도전문가 나인성 대승투어 이사, 불교계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자승 스님은 "국내에서 먼저 1주일을 인도에서 진행될 방식으로 대중들과 함께 만행을 하고자 한다. 저녁 공양 후에는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불교에 기여하기 위한 집담회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회의에서 예비순례는 11월 경 인도 날씨와 가장 비슷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1주일간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인도 만행결사 계획에서 공개된 대로 오전 3시 기상 후 오전 4시부터 10시간을 걷고, 저녁 공양 후 강연과 토론 등이 진행된다.

매일 30km의 도보순례를 통해 참가자들의 체력을 다지고, 결사 의지를 함께 북돋을 예정이다.

한편, 상월선원 인도 만행 결사에는 25명 결사대중에 참여하기 위해 45명이 접수한 상황이다. 결사대중은 "이번 인도에서의 만행결사는 안거 수행을 회향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관광이 아닌 수행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문의 010-5416-0616(지객 원명 스님) 노덕현 기자

'EM 지구사랑', 친환경 소독제 무상공급

EM과 구연산 복합체로 구성

본부 · 지부 중심 홍보 · 보급 중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인 EM을 활용 · 제작한 친환경 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계종 승가결사체 'EM 지구사랑 작은실천(대표 혜솔, 이하 EM 지구사랑)'이 무상 보급에 나섰다.

'EM 지구사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장균, 살모넬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바이러스 등에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본 구연산 EM 복합체를 무상 공급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EM 지구사랑'이 보급하는 구연산 EM복합체는 안양 한마음선원 1층 출입구에서 매일 1인당 2리터씩 무상 공급된다.

'EM 지구사랑'은 쌀뜨물을 EM으로 발효해 환경정화제로 바꾸는 EM 쌀뜨물발효기를 개발해 사찰과 지역공동체에 보급하고 교육하는 단체이다. (031)470-3215 신성민 기자